

2024 07
제234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덕구 홈페이지 E-BOOK으로 연결됩니다.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라이프 제호 서체 : 글고운 캘리그래피 박진희 作

- 02 좋은글, 좋은 시
- 03 민선8기 취임2주년 인터뷰 및 성과
- 05 구정소식
- 06 대덕구 맛집을 찾아서
- 07 [대덕구기관장협의회] 조성호 대덕경찰서장
- 08 열린의정
- 10 육아하는 아빠 사진공모전
- 11 대덕톡톡

나는 왜 이제야 아는가

박종분(시인, 대덕문학회 회원)

어느 여름날
함께 동네를 걸으며 듣던
아버지 이야기가
내 일생의 등불이었다는 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건
세월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라는 걸

사랑하는 사람의 고난을
덜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말만 한 것이
영원이 후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이 모든 진리를
좀 더 일찍 알지 못한 어리석음이
내 것이란 걸
나는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발행인 대덕구청장
편집인 기획홍보실장
발행처 기획홍보실(TEL:608-6603 / FAX:608-3811)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홈페이지 www.daedeok.go.kr
발행일 2024년 7월 5일(제 234호)

* 대덕라이프에 게재되는 시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됩니다.



2022. 7.

제13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임기 시작

2024. 6.

민선8기
2주년

민선8기 2주년,
대덕구의 미래를 듣다

지난 2022년 7월1일 출범한 민선8기 대전 대덕구가 어느덧 2년이 지나 이제 막 본격적인 임기 후반부에 돌입했다. **최충규 호(號)**는 지난 2년간 대덕발전의 토대를 다지고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경기 침체에 따른 예산 감소 등으로 녹록지 않았던 현실 속에서도 구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에 대덕라이프는 민선 8기 지난 2년의 주요 성과를 훑아보고, 최충규 대덕구청장으로부터 향후 2년간의 구정 운영 청사진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1. 민선 8기 대덕구청장 취임 2년이 지나며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소회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민께 약속한 사업들과 대덕구의 대변화를 이룰 핵심 현안 해결에 집중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흐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800여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경제와 교육, 문화, 안전, 복지, 환경 등 전 분야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남은 임기도 처음에 품고 다짐했던 ‘오로지 대덕을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을 잊지 않고 지키며 결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만, 국정과제인 연축혁신지구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답보상태에 놓인 점이 아쉽습니다. 국토부의 용역 결과가 11월쯤 나올 예정인만큼 내년에는 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2. 임기 후반기 구정 계획을 소개한다면?

지난 2년은 대덕구의 미래에 대해 설계하고 도약의 토대를 튼튼하게 다지는 시기였다면, 향후 2년은 이를 바탕으로 완성품을 구민들에게 선사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정과제인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및 대전산업단지 대개조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또, 연내 연축동 신청사 건립이 착공되는 등 본격적인 연축동 시대를 열어갈 준비에도 만전을 다할 것입니다. 이밖에 공약사업인 새여울물길 30리·계족산 시민공원 프로젝트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신대지구 대전 디지털 물산업밸리 조성 △리틀돔 야구장·대전 대표도서관 유치 등 새로운 개발 호재(好材)들도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Q3.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으로의 2년은 구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을 빈틈없이 완수해 대덕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도시, 구민이 행복한 도시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우리 대덕은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며 멈추지 않고 성장할 것입니다. 손을 맞잡고 어깨를 맞대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함께 걸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덕발전 토대와 현안 추동력 확보 민선8기 대덕구정 2년의 발자취

대덕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구정 슬로건인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실현을 위해 △희망찬 미래 사회 △따뜻한 복지환경 등 6대 구정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대덕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이기 위한 변화와 도약의 청사진 마련하고, 행정혁신을 기반으로 대덕발전의 토대를 다졌으며 주요 현안 사업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총 6대 분야 45개 공약사업 중 2024년 5월 말 기준 △사업

완료 3개(6.7%) △이행 후 계속 추진 20개(44.4%) 등 총 51.1%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나머지 22개(48.9%) 공약사업도 △정상 추진 21개(46.7%) △일부 추진 1개(2.2%) 등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공약 이행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23년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 최우수(SA) 등급 달성 및 공모사업 선정 69건 416억, 기관평가 수상 86건 19억 등 총 155건에 4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시 분야

△연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대지구 산업단지 조성 확정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등 4개소 도시재생 거점시설 준공 △송촌동 북대전세무서 대덕 민원실 설치 등

경제 분야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추진 (7728개 일자리 유지·창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 개최 △법동전통 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전통 시장 환경개선 △중소기업 혁신 성장 벨트 조성 등

문화 분야

△대덕물빛축제 성공 개최(누적 방문객 133만명) △리틀돔 야구장·대전 대표도서관 유치 확정 △중리 근린공원·석봉복합문화센터 준공 △대덕시티투어 운영 등

복지 분야

△대덕형 마을돌봄서비스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1인 가구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 시행 △방문의료지원센터 조성 △어르신돌봄건강학교 운영 등

민선8기, 앞으로의 2년 목표

01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조성으로 균형발전 실현

- 연축 도시개발, 대전 디지털 물산업밸리, 신청사 건립으로 신도심 거점 구축
- 오정동 재창조, 효자·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도모

03

자생력 갖춘 상권 조성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

- 대전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제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 확보,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 견인
- 청년지원정책, 전통시장 현대화,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05

대덕형 복지 확대를 통한 따뜻한 대덕 실현

- 대덕형 마을돌봄, 긴급복지지원 강화, 여성·아동·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 등 촘촘한 사회복지망 구축

02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정주환경 개선

- 회덕다목적체육센터, 대표도서관, 리틀돔 야구장 건립으로 구 랜드마크 조성
- 장동~이현 간 도로개설,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 개설, 신탄진휴게소 고속·시외버스정류소 설치, 트램노선 회덕역 연장, 법동 소류지 통과박스 확장 등 교통인프라 확대

04

특색있고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 새여울물길 30리·계족산 시민공원 프로젝트를 통한 복합관광단지 개발
-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으로 도심과 녹지가 어우러지는 그린라이프 선도
- 대표축제 육성, 길치문화공원·대전육교 명품화, 김호연재 문학관 건립 등 역사·문화 향유 기회 확대, 차별화된 축제 개최로 대덕의 브랜드가치 확립



대전 대덕구, 정부합동평가 대전 5개 자치구 중 '기여도 1위'

목표 달성·정책사례 등 우수... "구민 체감 정책 시행 집중"

대전 대덕구가 '2024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기여도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전시 5개 구 중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대전시는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기여 실적이 우수한 구를 선정한다. 올해는 6대 국정 목표 체계에 맞춰 △정량지표 87개 △정성지표 19개 등 총 106개 지표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 여부와 정책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덕구는 2023년 정부합동평가에 이어 올해도 자치구 기여도 평가 1위를 달성하며 대덕구의 우수한 행정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구 관계자는 "2년 연속 1위에 선정된 것은 구정 주요 부문의 우수한 행정력과 공직자 모두의 노력을 인정 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덕구 로컬푸드 직매장 문연다

계룡급식센터와 위·수탁 협약 체결... 석봉복합문화센터 내 조성

대전 대덕구는 (주)계룡급식센터(대표 김창섭)와 '대덕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덕구는 (주)계룡급식센터에 직매장 시설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 (주)계룡급식센터는 이를 수탁받아 지역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대덕구는 지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공모사업'에서 '도농상생형' 분야에 선정된 바 있다.

이후 구는 석봉복합문화센터 내에 260㎡ 규모로 직매장을 조성했으며, 2023년 운영의 전문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 운영 방식으로 결정, 공개모집을 통해 2024년 (주)계룡급식센터를 민간 위탁 업체로 최종 선정했다.

대덕구 로컬푸드 직매장은 석봉복합문화센터 개관식인 지난 3일 정식 운영을 시작했으며, 개소 기념으로 지역 대표 농산물인 '대청호 복숭아' 판촉 행사를 오는 7일까지 진행한다.

대덕구청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구민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해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은 석봉복합문화센터 1층에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명절 당일과 다음날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 기획발굴 조사 실시

고독사 선제 예방 및 상시 발굴·지원체계 구축

대덕구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를 추진한다.

대덕구는 1인 가구 비율이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나이별 대상자 중 중장년층(50~60대)의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아, 고독사 위험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 가구를 포함해 50~60대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동 맞춤형 복지팀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동별 인적 안전망 등과 협력해 조사에 나섰다.

구는 고독사 위험군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위험군 대상자로 등록, 위기도에 따라 △사례 관리 △일상 돌봄 △안부 확인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제공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회덕중학교 특별한 활동 '논길'

학생들 대상 '나만의 식물 키우기' 활동 운영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55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소통과 공감,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한 학교 '회덕중학교'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만의 반려 식물 키우기' 활동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평균 스트레스 인지율은 38.7%이며, 우울감 경험률은 27%에 달했고 자살 생각 비율은 무려 1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심리적 현상인 불안, 우울, 증, 긴장 및 고립감 공격성 등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회덕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자 '나만의 반려 식물 키우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2022년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10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식물을 활용한 활동을 진행한 결과, 기르는 식물에 대한 애착과 관심 대상이 늘며 신체 저하 요인이 48.6% 감소해 활동적으로 바뀌었고, 우울의 총점이 39.2% 줄어 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회덕중학교 학생들이 운동장 조회대에 모여 1학년은 방울토마토, 2학년은 딸기, 3학년은 다리아를 심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학생들은 개인이 만든 반려 식물 화분에 물을 주는 등 자체적으로 마음을 다해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 식물 키우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나의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회덕중학교의 나만의 반려 식물 키우기와 같은 활동들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 완화와 공감 능력을 향상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덕구민 여러분들도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작은 반려 식물을 키워보며,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최현정 대덕구청초년기자단



우리지역의 **맛집**을 찾아서



맛·인심·가격 삼박자 갖춘

법2동 맛보리감자탕

- 대덕구 계족산로5번길 106(법동 201-12) / 042-623-4286
- 감자탕(小) 2만2000원, 묵은지감자탕(小) 2만4000원, 두부두루치기 1만2000원
돌솥비빔밥 8000원, 보리밥 7000원, 순두부찌개 7000원, 굴국밥·굴돌솥비빔밥 8000원(계절메뉴)
- 영업시간: 11:00~21:00 / 연중무휴



돼지 뼈에서 우러나는 매콤하고 진한 국물에 구수한 우거지, 실하게 붙은 부드러운 등뼈 살 등 든든한 한끼 식사로 제격인 감자탕과 새우, 바지락 등이 푸짐하게 들어간 순두부찌개, 시골 향 가득한 보리밥, 겨울철 별미인 굴국밥 등 대한민국 대표 한식 메뉴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맛집이 있다.

대전 대덕구 법2동 먹자 골목에 위치한 맛보리감자탕(대표 이선범·진영자)은 지난 2016년 9월 이곳에 문을 열어 벌써 8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이 집의 음식 맛은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아내 진영자 씨의 꼼꼼한 손맛에서 시작된다.

우선, 이 집의 감자탕은 돼지 뼈와 감자, 우거지, 팽이버섯, 파 등이 냄비에 먹음직스럽게 담겨 나오고 폭 익어 젓가락만으로도 살점이 분리되는 부드러운 살코기는 식감이 일품이다.

또, 이 집의 별미인 순두부찌개는 새우, 조개들을

꼭 우려내 시원하고 얼큰한 국물 맛을 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에 신선한 나물과 갖은 나물과 채소를 넣고 고추장과 참기를 한술에 구수한 된장찌개 국물을 살짝 떠서 비빔보리밥 또한 무아지경에 빠져드는 맛이다.

음식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대로 된 식재료다. 그래서 이 집은 쌀, 양념류, 돼지고기 등을 가급적 국내산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상추, 고추, 배추, 무 등을 계족산 아래 텃밭에서 남편인 이선범 대표가 직접 재배해 쓰고 있다. 점심 손님 서빙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대표가 홀연히 사라졌다 저녁 장사 전 다시 식당으로 돌아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부족한 물량은 농수산물시장에서 새벽 장을 봐 충당하기도 하지만 가지, 애호박 등은 물론 냉이 등 제철 나물도 이 대표가 직접 재배하거나 캐오다 보니 재료에 대한 신뢰감은 물론 귀한 나물들도 종

종 올라오다 보니 반찬 맛 때문에 방문하는 손님들도 적잖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푸짐하게 내놓는 메인 메뉴는 물론 신선한 반찬들이 매일 바뀌며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이 식당은 7000~8000원 대의 착한 가격까지 갖춘 맛집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한때는 5000원대 가격으로 손님들에게 넉넉한 상을 제공해 왔던 맛보리감자탕은 코로나19 이후 현재의 가격으로 딱 한번 올렸다고 한다. 최근 뛰는 물가에 가격 인상을 고민했지만, 꾸준히 찾아와 맛있게 드시고 가는 손님들이 눈에 밟혀 마음을 비웠다고 한다.

이선범·진영자 부부는“단순한 음식 장사가 아닌 마음과 행복을 나누는 그런 음식점으로 오랫동안 손님들 곁에 있고 싶습니다”라며 “정직한 재료와 정성으로 변함없는 맛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어머니 밥이 그리울 때

법2동 샘물식당

- 대덕구 계족산로5번길 102(법동 201-11) / 042-634-4450
- 갈치조림 9000원, 조기·동태찌개 8000원, 김치·된장·청국장찌개 7000원, 낙지볶음·낙지전골 2만4000원, 제육볶음 2만5000원
- 영업시간: 11:00~21:00 / 연중무휴



가정식 백반은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매력이 담겨있다.

법2동에는 모든 메뉴와 반찬들은 맵고 짜고 자극적이지 않아 식사 후 속이 편안하고, 사장님의 손맛과 푸근한 인심이 더해진 동네 맛집이 있다.

대전 대덕구 법동시장 인근 먹자골목에 위치한 샘물식당(대표 이화복·김순애 부부)이다. 이곳은 청국장·된장찌개·갈치조림·조기찌개·동태찌개·낙지전골·볶음 등 조림·찌개 전문점이다.

샘물식당은 지난 2008년 12월 대덕구 읍내동에서 문을 열었다. 아내 김순애 씨가 혼자 식당을 운영했으나, 혼자서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판단으로 남편 이화복 씨가 합류하면서 이곳 법2동 먹자골목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손님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온 샘물식당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는 음식 전반적으로 심심한 간 맛을 들 수 있다.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 위장(胃腸) 등 몸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건강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천하기 어렵다.

샘물식당에 방문한 손님들은 모든 메뉴와 반찬들이 자극적이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려 어릴 적 어머니가 챙겨주셨던 ‘집밥’ 같아 식후 속이 편안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또한 이 집은 메뉴 하나하나에 정성과 자연의 신선함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에서 직접 띄워 만든 청국장은 조갯살, 두부, 대파 등을 넣어 펄펄 끓여 나오는데 구수하고 토속적인 맛이 옛날에 먹던 그 맛 그대로다.

갈치조림·조기찌개도 어릴 적 이틀이 멀다하고 밥상에 올라와 질리기도 할법한데 눈 깜빡할 사이 밥 한공기를 뚝딱 해치우게 하는 밥도둑 메뉴다.

이처럼 주메뉴도 훌륭하지만 직접 담은 김치, 오이무

침 등 6~7가지의 기본 반찬들도 예술이다. 얼마 전까지만 배추·파·나물류 등을 조금씩 직접 농사를 지어 충당해 왔지만, 이제는 힘에 부쳐 남편 이화복씨가 새벽마다 농수산물시장에서 직접 장을 봐오고 있다.

특히, 쌀·김치·고춧가루·닭·등뼈·소고기 등 대부분의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화복·김순애 부부는 “적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질 좋은 것을 사용해야 맛이 좋습니다”라며 “손님들에게 변함없는 음식 맛을 제공하는 것은 정성이지요. 이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크게 바뀐 회식 문화 등으로 장사가 예전 같지 않지만 3인분 같은 2인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넉넉한 인심만큼은 변함이 없다.

화려한 인테리어나 입맛을 자극하는 매콤달콤한 맛은 아니지만 무던한 우리네 사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샘물식당에서 오늘 점심 한 끼 어떨까.

“가장 안전한 대덕구를 만들겠습니다”

조성호 서장이 대덕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지 약 5개월이 지났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조성호 서장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으로 ‘가장 안전한 대덕’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구민들과 대덕경찰서가 함께한다면 우리 대덕구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안전하고 평온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덕라이프는 조성호 서장을 만나 부임 소감과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해 들어봤다.

대덕구기관장협의회 조성호 대덕경찰서장



조 성 호
대덕경찰서장



Q. 대덕경찰서장 부임을 축하드린다. 부임하신 지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첫 느낌과 앞으로 대덕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대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2월 5일 대전 대덕경찰서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대덕구 지역이 유구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유서 깊은 곳임을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 관내를 구석구석 돌아보고 주민들을 만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오랫동안 대덕구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고, 지역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제게 한결같이 대덕구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대덕경찰서 직원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범죄·사고로부터 안전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가장 안전한 대덕’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Q. ‘법질서 확립과 주민생활안전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등 대덕구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진행된 상생협력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을 말씀해 주신다면?

대덕경찰서와 대덕구는 주민 안전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고 있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대덕경찰서는 대덕구와 함께 우리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범죄예방환경개선(CPTED)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회덕초 등하굣길 승하차 구역 개선 △대화동 재개발구역 안심 반딧불길 조성 △석봉동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 등을 이미 완료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범죄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CCTV 설치 △호연재 여성안심공원 조성 사업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대덕물빛축제와 같이 다수가 밀집하는 지역축제 운영 시 대덕구에서 주관하는 안전관리위원회에 저희 경찰서도 참여해 안전상 위험요소를 사전에 논의하고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층 더 지속 가능하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소통과 협업이 이뤄진다면, 그 혜택은 대덕구 주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대덕경찰은 구민 모두가 안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Q. 취임 이후 관할 지역 치안을 위해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해 주신다면?

치안 문제와 관련해 주민분들의 고견을 청취한 결과, 경찰이 평소에 열심히 순찰해서 눈에 잘 띄고, 사건·사고가 있을 때 신속하게 출동하면 더 안전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대덕경찰서는 신고가 많은 장소 인근에 ‘순찰차 거점 구역’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중요한 거점에 순찰차가 대기하면서 112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도 더 많이 눈에 띄어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선도와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대덕경찰서는 농협대전공판장·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금을 조성해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범죄 등 일탈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이 협약이 마중물이 돼 지역사회 모두가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가기를 바랍니다.

이밖에 공단이 많은 지역 특성상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청 최초로 관계기관과 협업체 화물차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속도제한장치 해제, 과적 등 주요 안전기준 위배 행위에 대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Q. 대청호, 계족산 등 대덕구에 명소가 많다. 가보신 곳과 느낌을 말씀해 주신다면?

개인적으로 장동산림욕장과 계족산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의 취미 중 하나가 등산인데 대전에 발령받기 전 충북에서 근무할 때부터 주말이면 자주 집에서 가까운 장동산림욕장을 방문해 운동 겸 업무에 지친 마음을 힐링하곤 했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아름드리 붉은 나무가 하늘로 끝없이 치솟은 황토길을 땀 흘리면서 걷다 보면 모든 근심·걱정이 싹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전국 어느 숲길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명소인 만큼 아직 가보지 않으셨다면 꼭 가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Q. 끝으로 대덕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동안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 곁을 지키며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늘 한결같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민들 덕분입니다.

대덕경찰서 직원 모두는 앞으로 주민 안전 확보라는 경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민 여러분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가장 안전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한 우리 경찰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지금처럼 변함없는 애정으로 대덕경찰서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덕경찰서는 한결같이 주민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구의회, 올해 첫 정례회 일정 소화

제275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제1회추경 심사 등



대덕구의회는 올해 첫 정례회 일정을 소화했다.

구의회는 지난 6월 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 제275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했다. 이 기간 구정질문과 함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검사 결과 승인 절차를 밟았다.

특히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으로 집행부의 처리 사항과 향후 계획을 들었다. 민선8기 대덕구가 중반에 들어선 만큼, 주로 숙원사업 관련 사안을 다뤘다.

이와 함께 약 484억 원 규모로 편성된 올해 첫 추경 예산안과 △야외운동 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효서 의원)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대웅 의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준규 의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전석광 의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기흥 의원)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 조례안(양영자 의원)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유승연 의원) 등을 심사했다.

기고

대전예술인복지지원센터 건립을 요구하며



양영자 의원

대전지역에서 예술을 업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2021년 예술활동증명 신청인 기준 3399명이며, 처음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받은 2013년 149명과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면을 보면 예술 활동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예술활동증명을 통해 예술인 복지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자가 첫해보다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역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대전 예술인들이 지역에 머무르며 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 예술인이 살기 좋은 대전, 예술인 누구나 누리는 대전형 복지 정책엔 무엇이 있을까. 필자는 ‘대전예술인복지지원센터’ 건립을 요구하고 싶다. 센터의 핵심 역할과 기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예술인 복지지원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다. 이를 통해 지역 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고양하고 지역 예술문화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조성을 도모해 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지역 예술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셈이다. 정부가 주도

하는 직접 사업이 지역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도 센터 건립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부산시의 전폭적 지원으로 2016년 출범한 부산문화재단 산하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모범사례로 꼽힌다. 해당 센터는 지역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창작 여건·생활환경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부산형 예술인산학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부산지역 예술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과 신진예술인들이 공연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화예술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구성원 간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며 고독사, 고령화와 저출산, 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또한 경제와 국가 발전의 필수 요소로서 경제와 문화의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과 국가적 존엄성과 긍지를 고양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점들은 공공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근거이다.

대전예술인복지지원센터 건립은 대전만의 문화 정체성 확립을 바탕으로 K-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과학 문화도시 대전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대덕구의회, 주요 현안부터 민생까지 제언 쏟아내



대덕구의회가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주요 현안과 민생 관련 각종 제언을 쏟아냈다. 구의회는 지난 6월 14일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이 전원 참여한 가운데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다음은 의원별 구정질문 주요 내용. [편집자 주]



박호서 의원은 대덕구 대표 축제인 '대덕물빛 축제'의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기존 축제와의 차별화 전략과 '킬러콘텐츠 (매력적인 핵심 콘텐츠)' 마련을 주문했다.



조대웅 의원은 젊은 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신탄진청년주택'의 인접 건축물과 관련해 일조권 침해, 상가건물로서 유리한 환경 등을 들어 해당 건축물의 건축 인·허가 과정의 아쉬움을 밝혔다.



이준규 의원은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에 대해 지역 문화자원 등과 연계된 소규모 브랜드로 이뤄진 '로컬브랜드 상권'으로서 육성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관련 정책 마련과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전석광 의원은 대덕구 신청사 등이 들어설 연축지구를 '제2대덕특구'로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낙후된 대덕구 동북권의 획기적 변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홍 의원은 막대한 신청사 건립 비용 등을 고려해 한정된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하고, 중·장기적 시각에 맞춰 재정운용 계획을 설계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영자 의원은 지역 관급공사 하자 발생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완공 후 다량의 부실이 발생할 시 설계·감리·시공 중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연 의원은 장기 방치된 빈집에 대해 '빈집 활용 사업'이 주거 환경 개선뿐 아니라 인구 유입, 관광 명소화 효과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종합적인 사업 추진 전략과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집 슈퍼맨들을 응원합니다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슬기로운 아빠생활' 사진 공모전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운숙)가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육아하는 아빠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다. 대덕구에 거주하는 0~5세의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8일까지 접수를 진행했으며, 올해 공모전에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지난해보다 많은 50여 작품이 접수됐다.

센터는 투표를 진행해 △대상 1명(10만원) △최우수상 3명(각 7만원) △우수상 6명(각 5만원)을 시상하고, 지난달 사진전 참가가정 전체에 원목 액자와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또한 대덕구청사 현관 로비에서 사진 지난 5월 23~29일 전시회를 진행해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이에 대덕라이프는 7월호에는 '슬기로운 아빠생활' 사진 공모전 수상작과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아빠들의 짧은 소감을 게재해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대 상

01

[대상] 01 | 김인경님

대상소식에 주변 모든 분들이 같이 좋아해주시며 격려와 축하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기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할 수 있게 해주신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투표해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보답으로 더 열심히 육아하는 우리 가족의 보물 항유은 아빠가 되겠습니다.



최우수상

02

[최우수상]

02 | 김지혜님

저희 가족의 사진을 보고 함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상의 계기로 아이 아빠도 더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이어지길 바라며, 모두가 행복한 육아 하시길 바랍니다.

03 | 이정현님

세 아이를 키우는 저희집을 향해 모두가 힘들겠다, 대단하다 말하지만, 아이들이 말로는 감히 표현하지도 못할 만큼의 큰 감동을 선사해 주기도 합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하루에 커다란 추억 하나 챙겨갑니다. 감사합니다.

04 | 전주민님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함께 웃으며 더욱 건강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최우수상

03



최우수상

04

우수상

[우수상]



[김태양님]



[박정주님]



[박효순님]



[이효성님]



[정상근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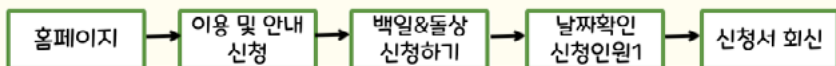


[최재성님]

백일 & 돌상 무료대여사업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내 백일 및 돌을 맞이한 영아가족에
백일&돌상을 무료로 대여해 드립니다.

- ◎ 대여대상: 대덕구 관내 거주 백일 및 돌 영아를 둔 가정
대덕구 주소지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 양육자
- ◎ 시행기간: 2024. 6. ~ 2024. 11.
- ◎ 대여기간: 최대 5일 (매주 목요일 대여~ 다음주 월요일 반납)
- ◎ 대여장소: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 ◎ 신청방법: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daedeokchildcare.or.kr)



※ 자세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물품구성



라운상(백일)



다솜상(백일)



아람상(돌)

- ◎ 백일 & 돌 의상 대여 및 액자1개 무료제작(20*25)

※ 물품구성은 위 사진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문의 : 042)632-1256

대전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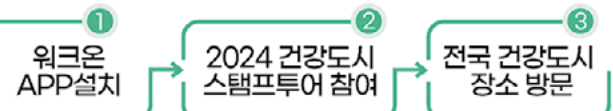
기 간 2024년 5월 1일(수) ~ 11월 30일(토)

내 용 전국 220개 건강도시 장소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하여 스탬프 모으기

우리지역



참여방법



리 워 드

매월 추첨하여 커피쿠폰 등 증정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지급

문의전화

대덕구보건소 건강증진팀 ☎ 042-608-5472

식중독 주의 정보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주의

-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주의 요령에 대해 알아보시다.

◎ 병원성대장균이란?

동물의 장내에 서식하는 대장균 중 일부 장세포에 침입하거나 독소를 생성하여 병원성을 나타내는 균으로 장내염증과 설사 및 구토 등을 유발시킨다.

◎ 오염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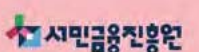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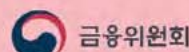
오염된 물(지하수 및 음용수 등)이나 식품, 오염된 식품·조리도구 등으로 인한 교차오염, 생산자의 비위생적 처리 등

◎ 대표 증상

주로 복통, 구토, 설사, 피로, 탈수
*주의! 장출혈성대장균(O157:H7)에 감염된 경우, 혈성 설사까지 발생할 수 있음

◎ 주의 요령

- 1 조리 및 식사 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2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과일은 소독·세척하기
· 염소 소독액(100ppm)에 5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2~3회 이상 세척
* TIP! 100ppm - 4% 염소 소독액 400배 희석
- 3 육류, 생선, 채소·과일용 칼·도마는 구분 사용
· 음식 조리 시, 식재료에 묻어있는 식중독균에 의해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칼·도마 구분 사용
- 4 세척한 식재료는 바로 조리 또는 냉장 보관
- 5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익혀먹기(어패류는 중심온도 85℃, 1분 이상)
· 특히, 다짐육을 이용한 음식 조리 시, 속까지 완전히 익었는지 확인
- 6 생고기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재료와 조리된 음식은 구분 보관
· 생고기, 식재료는 아래 칸, 조리된 음식은 위 칸에 보관
- 7 지하수 및 관리하지 않은 음용수(약수터 등)는 끓여서 섭취
- 8 위생적인 조리기구 관리(열탕소독, 염소소독, 용도별 구분 사용 등)로 2차 오염 방지



소액자금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마세요.

「소액생계비대출」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인가요?

소액의 생계비가 부족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안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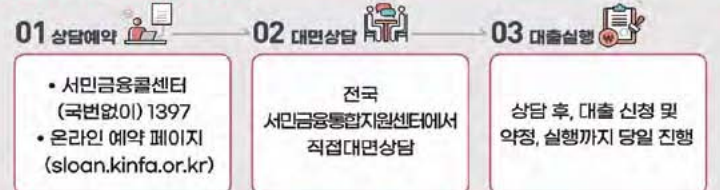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분
-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분(연체이력이 있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 등)

지원 내용이 궁금해요

대출한도	상환방식	납부이자
최대 100만원 (최초 50만원)	1년 만기월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최초 월 이자 6,416원*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추가 대출 가능	성실상환 시 최장 5년 이내 만기 연장 가능	*50만원 대출 및 금융교육 이수 기준 이자 성실납부 시 최저 이용금리 9.4%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소액생계비대출 상담예약은 (전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온라인) sloan.kinfa.or.kr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분 : 7월, 9월에 1/2씩 고지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게 됨

●납부방법 : - 금융기관 방문납부

- 계좌이체 납부

- ARS(☎ 042-720-9000)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
(www.giro.or.kr) 사이트 접속 납부

- 자동이체 납부

문의 : 대덕구 세정과 재산세과표팀(☎608-6243)
<http://www.wetax.go.kr>

2024 하반기 대덕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신청기간 : 2024.07.08.(월)~07.15.(월)

●대 상 : 대덕구민 우선 접수

●신청방법 : 대덕구 평생학습 홈페이지 (인터넷 주접방식)

※ 교육정원의 50%이상 모집시 개설

●운영강좌 : 웹툰독후반 외 34개(총35개) / 홈페이지 참고

※ 운영일시와 장소는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재료비/교재비는 신청접수시 공지

●장 소 : 대덕구 평생학습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79(석봉동) 3층

문의 : 대덕구 평생학습원(☎042-608-6494)

빈틈없는 국가안보 을지연습

2024년 8월 19일 ~ 8월 22일



대청문화전시관

목재 체험 수강생 모집

●내 용 : 생활목재(도마, 의자, 트레이, 시계, 기타 등)

●일정 및 시간 : 2024년 7~9월 / 매주 화·목·금 오후 2시

●대 상 : 선착순 대덕구 거주 성인(남·여) 각 5명

●장 소 : 대청문화전시관 목재 체험관 (대전 대덕구 대청로 607)

●신 청 : 전화 접수(☎010-5454-7028)

※ 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 핸드폰으로 신청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수강료 : 무료 / 재료비 : 추후 공지

문 의 : 대덕구 공원녹지와 대청문화전시관(☎042-932-0311)

석봉복합문화센터 7월 1일 오픈!



3F

대덕구 평생학습관
(요리교실, 강의실, 동아리실, 다목적홀)
석봉국민체육센터

2F

석봉도서관, 석봉루, 수유실(석봉도서관 내)

1F

석봉동행정복지센터 / 석봉동 주민자치회
북부주민건강센터
(스마트 어린이 건강체험관, 치매안심센터 분소)
대덕로컬푸드 직매장, 근로자 상담센터

B1,B2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2024년 대덕구 배달강좌 학습자 모집

「대덕구 배달강좌제」란

- 5인 이상 학습자를 구성하고 학습장소를 마련하여 강좌를 신청하면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학습을 제공
- 수강료 무료 (재료비 및 교재비는 학습자 부담)
- 회차별 1인 1강좌(연 최대 3강좌) 신청 가능

강좌신청 및 운영기간
1회차: 2월 신청 ▶ 3월 ~ 5월 운영
2회차: 5월 신청 ▶ 6월 ~ 8월 운영
3회차: 8월 신청 ▶ 9월 ~ 11월 운영
※ 신청월 1일~10일 사이 / 분야별로 신청 기간 다름(홈페이지 참고) / 선착순 마감
※ 1강좌당 20시간(1주 최대 2시간)

신청대상
개인: 5인 이상(대덕구민 과반 수 이상)
단체: 5인 이상(대덕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사업자, 기관 등 단체)
*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수 등록(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신청방법
대덕구 평생학습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교육신청 ▶ 배달강좌
※ 수강생 대표 1인(반드시 대덕구민) 신청 후, 신청 기간내 나머지 학습자 등록(미등록시 신청 취소됨)
※ 수강을 원하는 모든 학습자는 회원가입 필수

신청분야

대덕구 평생학습 홈페이지에서 개설된 강좌를 참고해 주세요

- 기초문화분야 한글문해교육, 디지털(스마트폰 활용 등) 문해교육
- 시민참여분야 생태, 환경, 도시농업, 심리상담, 퇴직준비 교육 등
- 문화예술분야 공예, 노래교실, 악기, 미술, 생활스포츠, 전통문화예술 교육 등
- 인문교양분야 건강상식, 독서, 창의력 향상, 외국어 등



대덕구 평생학습원
<https://lll.daedeok.go.kr> ☎ 042-608-6493